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 24일까지 연장

정읍시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SNS 인증 이벤트'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이벤트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비쿠폰 사용 매장에서 결제 후 인증샷을 찍고, 개인 SNS(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등에 '#정읍소비쿠폰' 해시태그와 사용 후기를 올리면 된다. 이후 네이버폼에 게시물 링크와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시는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치킨·햄버거·커피 등 인기 기프티콘을 선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하며, 경품은 11월 5일 발송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자체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뚜레일 투어'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구절초 꽃축제와 농촌체험을 엮은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투어'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투어는 아름다운 민간정원에서의 체험과 민개한 구절초 군락지, 지역 명물인 생화차 거리까지 둘러보는 알찬 일정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rail.com/>)에서 가능하다. 이번 '농뚜레일 투어'는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이름을 올린 농촌체험농장 '들꽃마당'에서 나만의 정원 만들기 테라리움 체험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구절초가 만발한 구절초정원을 찾아 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정읍 9경 중 하나인 생화차 거리를 둘러보며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짜였다. '농뚜레일'은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논:답 프리미엄 체험' 본격

고창군, 원더청년서 장 담그기·지역 미식 등 결합 청년 정착지역 목표 추진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원더청년(고창읍 월암마을)에서 '논:답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합 체험으로, 장 담그기 문화와 지역 미식, 족보 기록, 정원 힐링을 결합해 청년 정착과 지역 활력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논:답 프리미엄 체험'은 씨간장 만들기, 로컬 미식, 족보 활동지, 정원 산책 등 고창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씨간장 만들기(보관·관리 포함)'



는 7대째 이어온 웅기 장인의 전통 웅기에 명인의 매주와 고창산 고추·소금을 담아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는 체험이다. '로컬 미식 체험'은 고창을 대표하는 복분자와 장어 등 제철 재료를 활용한 한 끼 식사와 함께 복분자 하이

볼 및 음료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다. '족보 활동지 체험'은 가족과 개인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세대를 이어갈 가족만의 유산을 남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더불어 '논:답 정원 산책'은 정원을 거닐며 연인·가족·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과 청년은 네이버와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대표 관광자인 석정운천과 협약을 맺어 편의점 참가자에게도 판매 주인과 동일하게 3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해외 이전설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다짐했다

지역 핵심 기업 애로 해결 총력

이학수 정읍시장, SK넥실리스 현장 방문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읍시가 지역 핵심 기업인 SK넥실리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학수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해외 이전설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일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SK넥실리스 정읍공장을 방문해 류광민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업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급격한 전기요금·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 저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박(銅箔) 산업은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넥실리스 역시 일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고, 이에 이학수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것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 △인건비 부담 △미국의 관세부과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40% 이상 벌어져 생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현재 가동하지 않는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읍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고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공장은 모회사(Mother Factory)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해서 생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타 지자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대책과 지원제도 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구절초꽃축제·내장산휴양림 현장 점검... '안전' 최우선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 명절 연휴에도 시민 안전·편의 점검... 적극행정 실천 앞장

이학수 정읍시장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구절초꽃축제 개막을 앞둔 축제 현장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지를 잇달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14일 개막하는 구절초꽃축제를 앞두고 구절초치방정원현장을 방문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개막 전임에도 구절초를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었으며, 이 시장은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살폈다. 그는 행사장 내 부스 설치 현장·관람 동선·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세밀히 살피며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현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스 위치 민원 사전 조율·보도블럭 훼손 방지·꽃 식재 통일성 유지·참여업체 친절교육 강화 등 세부 사항을 지시하며 "작은 부분

하나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는 축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은 지난 10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 현장으로 이어졌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국토부 공모 선정

총사업비 46억원 투입 도로 이용자 편의 향상·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일반국도 구간에 조성할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청호저수지, 석불산 청호수마을, 계화간척지 등 주변 자원을 연계해 총면적 9462㎡ 규모로 휴게실, 공중화장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46억원(국비 20억원, 군비 26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국토부 공모를 신청해 최종 공모대상지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7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 체결 후 행정철차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호남고속도로 태인IC와 인접해 있으며 국도 30호선과 국도 4호선을 통해 군산과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도로 흐름상 전략적 요충지로 과거 1965년 섬진강수몰인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계화도 간척지를 비롯해 농업수 확보를 위해 축조된 청호저수지 인근 지역으로 단순 휴게 공간을 넘어 관광자원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청년창업농 선정자 증가... 35% 관외출신

고창군이 청년농업인 유입과 승계농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청년창업농 선정자 중 35%가 관외의 지역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창군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농업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청년농 유입 확대의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해 군은 최근 각 읍·면이장단 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 설명회를 열어 고창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알렸다.

현재 고창군은 맞춤형 청년농 프로그램 운영하며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신규 영농인 대상의 '새내기 청년농업인반' △가업을 승계하는 '승계농반'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수박·멜론스타디안'이 대표적이다. 또한 창업자금, 기술교육, 멘토링,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고 있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